

Dr. Kook Jin Moon, The second Asia Security Conference

Kook Jin Moon September 1, 2012

Dr. Kook Jin Moon, The second Asia Security Conference

During 2 nights and 3 days from August 16 to 18, the Second Asia Security Conference was held at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and Lotte Hotel in Jamsil. This conference was hosted by Strong Korea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 and a assemblywoman EulDong Kim's office and sponsored by Tongil Group, Washington Times Foundation and Segye Times. Total 350 persons (27 from abroad and 323 at home) including army Generals, security experts, political leaders and key leaders of government from 13 nations (Korea, Japan, USA, Philippine, Thailand, Nepal, Malaysia, Taiwan, India, Vietnam, Australia, Holland, Austria) participated at this event.

Dr. Kook Jin Moon gave a keynote speech in the title of 'Strong Korea' at Main Conference in auditorium of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at 2 pm on August 17. He said, "America did not take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y of the World and focused on its own interests. During all that time, China built up its military strength with the powerful economy in order to become the nation of hegemonic power. That is the uneasy factor to World Peace. So far, Korean peoples didn't concern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pay no attention to it." Dr. Kook Jin Moon exemplified Israel as the small but strong nation and asserted that Korea should be strong in order to gain the honest genuine peace.



Dr. Kook Jin Moon's special security lecture for Uijeongbu city with the title of 'Strong Korea'

Dr. Kook Jin Moon's special security lecture with the title of 'Strong Korea' was held at auditorium of North Center of Gyeonggi-Do Councilor's Members Association on August 20 at 10 am. This event was hosted by Uijeongbu Chapter of Gyeonggi-Do Councilor's Members Association and sponsored by Uijeongbu city Government and Assembly. About 200 peoples participated at this event.



* Segve Times: Let us make Strong Korea



문국진 동일 그를 회장 겸 강형대한만국 범국만운동분부 공동의장(왕쪽에서 여섯번째)이 17일 여의도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앞서 참석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베르너 파스라벤트 호주 전 국회의장, 김성찬 의원, 원유철 의원, 김율동 의원, 문 의장, 김민하 평화대사협의회 중앙 회장, 여상규 의원, 이현재 의원, 아스다 지야나마 태국 전 유연 대사,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허장호 기자

"더 이상 美에 기댈 수 없어… 강한 한국 만들자"

제2차 아시아 안보 컨퍼런스 국회서 열려

한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을 여하히 이뤄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제2차 아시아 안보 쮠 퍼란스'가 17일 국회 현정기념관 에서 강한대한민국 법국민운동 본부와 새누리당 김율동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쮠퍼런스에는 한국과 미 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태국, 네팔 등 13개국의 안보·국방 전문 가들이 참석, '중국의 부상과 동북 아의 미래",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안보 공조체제 확립' 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겸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의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세계

동북아에 영유권 분쟁이 촉발 경제력이 유럽, 미국처럼 전통적 으로 부유한 국가로부터 중국으 로 이동하고 있고 군사적인 혐의 균형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선 세계 안 보를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 을 짊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 고 있다"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 을 화두로 제시했다.

> 문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 제는 연평도가 공격당하고 그로 인해 민간인이 숨졌을 때 중국은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사 실"이라며 "한반도는 그동안 수 많은 전쟁과 분쟁 속에서도 미국 의 힘에 기대 역내 평화를 유지했 지만 만약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 서 사라지면 어떻게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분했다.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갓한 나라만이 평화 누려" 백승주 국방研 연구위원 中•日과 군사력 격차 우려도 각계 350여명 참석 성황

그는 강소국 이스라엘의 생존 시례 를 거론한 뒤, "강한 나라만이 평화 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응변하고 있다"면서 "나의 바람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강한 나라가 돼서 관화를 자키고 우리의 정체성 을 자켜나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G2(주요 2개국) 시대의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와 안보협력 증진 방향'이라는 제목 의 발제를 통해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 간 대결구조가 반영된 진영

대결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 본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구도 속 에 군비증강이 진행되고 있다"면 서 "한국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격 차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동맹전력이나 안보협력에 의존해지 않고도 핵심 이약을 지 켜낼 수 있는 전략적 억지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감조했다.

이날 깸사에는 문 의장 외에 김 민하 평화대사협의회 중앙회장. 윤정로 강한대한민국 범국민운동 본부 한국회장, 새누리당 원유철, 김을똥, 여상규, 이현재, 이채익, 김성찬, 김종태, 김진태, 민주통합 당 김춘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 욈 등 여야 의원 20여명을 비롯한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18일 임진

각에서 통일기원제 행사를 갖고 제 3땅굴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조남규 기자 * MBC: 20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sia Security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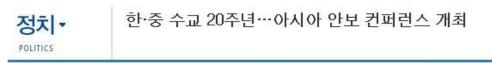
한중수교 20주년 '안보 협력 컴퍼런스' 개최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미일 안보전문가를 포함해 13 개국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 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내 안보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20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sia Security Conference.



뉴스 퍼레이드 현영희 의원 2차 소환 조사…'억울하고 참당' 💷 📘 🕤 🔘 🐻 💽 🗛 🗛



한국과 중국의 수교 2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위한 회의가 오늘(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 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안보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인이 된 중국 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무려와 함께 이에 맞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안보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 다.

* SBS: Holding Asia Security Conference.





한국과 중국의 수교 2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위한 회의가 오늘(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 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안보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인이 된 중국 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무려와 함께 이에 맞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안보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안보 컨퍼런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14개 나라 안보 전문가 20여 명을 포함해 3백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Opening of WonGu University

http://www.wongu.org



Download Application





NSBOM approved to Wongu on April 18, 2012

practitioners within the field in the United States.

Nevada's history. Graduates from Wongu qualify to gain the title of Oriental Medicine Doctor (OMD), the highest recognition achievable by

July 18, 2012

MORE >

We have been able to secure full approval from the Nevada State Board of Oriental Medicine (NSBOM) on April 18, 2012. The official name of the school is Wongu Peace and Happiness University (WPHU) and it is the first school of Oriental medicine in Nevada's history. This school will support our vision to improve the state of human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the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ultimately promoting peace and happiness for humanity. Wongu, as intended, will produce a cadre of highly competent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able to assist with this vision.

MORE)

